



기획시리즈



최명섭
임업연구원

히어리는 원산지가 한국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드물고 일본,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정원수 또는 공원수로 많이 식재하고 있다. 높이 2~5m까지 자라는 낙엽이 지는 활엽관목으로 넓은 정원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가정에서 한 두 그루 정도는 심을 수 있다. 개나리, 진달래 등의 봄꽃이 피기 10여 일전에 꽃망울을 터뜨리는 히어리의 노란꽃은 잎도 피지않은 나무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룬다. 이 꽃은 초가을부터 서리가 내릴때까지 꽃봉오리를 만들어 겨우내고이 간직 하였다가 잔설(殘雪)이 가시지 않은 이른봄 꽃눈이 자라 황금빛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다. 중부지방에서는 '영춘화'(迎春花)로 귀여움을 받고있는 히어리는 야생상태보다 가정에서 기를 경우 개화기도 20여 일 더 빨라 봄을

히어리

과명 : 조록나무과
학명 : *Corylopsis coreana*
영명 : Korean Winter Hazel
한명 : 松廣蠟瓣花
일명 : しょうこうみずき

앞당겨 맞게 해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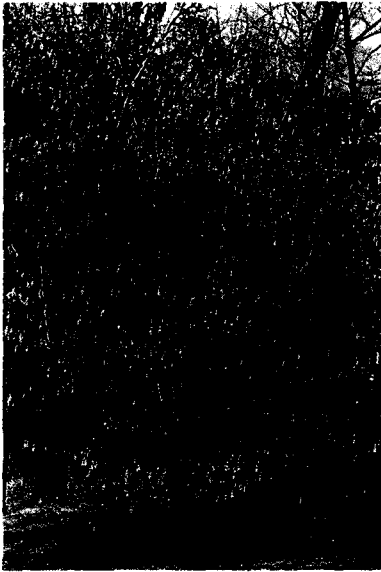
1. 생태적 특성

히어리는 우리나라 특산으로 남해도, 지리산, 수원 광교산에서

자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최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백운산의 표고 500m 되는 곳에서 발견한 바 있다. 낙엽활엽의 관목으로 높이가 5m까지 자라며 군집을 형성한다. 뿌리부분에서 많은 새가지가

▼히어리 꽃





▲히어리꽃 전경

나와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고 철쭉, 진달래, 참새리, 팔배나무, 신갈나무와 함께 혼생하며 양지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에도 잘 견디어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며 내건성도 강하여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.

2 형태적 특성

밑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올라와 여러개의 줄기를 가진 큰 포기를 형성하며 작은 가지는 황갈색으로 수피에 백색의 피목을 가지며 겨울눈은 타원형으로 황갈색이다. 잎은 어긋나며 계란상 타원형으로 잎끝은 짧으며 아래부분은 심장형이다. 잎은 길이 5~9cm, 넓이 4~8cm로 뾰족한 톱니가 있고 표면은 연한녹색으로 질감이 좋으며 뒷면은 회백색이고

털이 없다.

꽃은 총상화서로 길이 3~4cm로 꽃이 핀 다음에는 7~8cm로 자란다. 3월에 8~12개의 작은 꽃이 초롱모양으로 늘어서 피며 꽃잎은 도란형이고 연한황녹색이다. 9월에 익는 열매는 털이 많고 자방에 2~4개의 검은 종자를 갖는다.

3 조경수로써의 활용

이른 봄의 노란색꽃이 이삭처럼 늘어서 나무전체를 노랗게 뒤덮어 이른봄, 봄을 알리는 화신으로 감상할 만하며 가을에 진노란색으로 물드는 단풍도 매우적이어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관상수로 낙엽이 진후 앙증스런 가지에 쌓이는 설화(雪花)도 감상할만하다. 개나리, 목련, 향나무 등 흔히 볼 수 있는 정원수보다 부담이 없는 히어리를 한 두 그루 심는다면 삭막한 도시민들이 사시사철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또한 적응성이 강하여 어떤 입지에도 잘 적응하며, 수분요구량이 상당히 낮아 내건력이 강하기 때문에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.

가정 정원에 식재할 경우 물이 잘 빠지는 모래땅에 식재하고 거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퇴비를 준 다음에 식재한다.

4 번식법

종자 및 삽목 두가지 방법이 가



▲경기도 포천 백운산의 자생지

능하다.

9~10월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젖은 모래와 섞어 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 3월 중순~4월 중순에 파종하면 묘목을 얻을 수 있으며 파종량은 m^2 9g 정도 판다. 발아는 3월 하순에 파종한 것은 5월 상순경에 발아한다.

삽목은 전년에 자란 충실한 가지를 1월 하순이나 2월에 채취하여 저장하거나 여름에 1차 생장이 정지된 때 채취하여, 삽목한다. 삽수의 길이는 15cm 전후가 적당하며 여름에는 잎을 2~3매 붙여 삽목한다.

5. 그 밖의 용도

이른봄에 노랗게 핀 가지는 꽃잎의 소재로 이용할 만하다.